

# ‘올해의 광주 스타정책’ 시민이 직접 뽑는다

23일 시청서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1인 2표 현장투표 실시간 결과 공개  
12월 경진대회 거쳐 ‘베스트10’ 선정

광주시가 시민 삶을 바꿀 핵심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점검하고 완성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1층에서 ‘제1회 광주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2026년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한다. 정책평가박람회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4년 연속 열리는 시민참여형 정책 평가 행사다.

올해는 ‘정책, 시민과 함께 완성하다’를 주제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고른 ‘올해의 기대되는 스타정책’ 후보 30개가 전시·소개되며 현장 평가도 동시에 진행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과 시·구 공무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 5천831명과 공무원 1천30명 등 총 6천870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53개 후보 중 가장 기대감이 높은 30개 정책을 엄선

했다. 주요 후보 정책은 ▲9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대개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역명 시민 참여 결정 ▲2026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 ▲판다가 온다! 발길이 돈다! 광주가 산다!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이 함께 합니다 ▲원정 진료없이, 우리 지역에서 24시간 안심진료! ▲하늘과 땅, 막대한 이동의 시작!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신도시 광주! ▲시민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광주상생카드! ▲시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아웃(OUT), 자원순환도시 광주 완성! ▲청년정책 소평하다 한곳에서! 광주청년통합 플랫폼운영 등이다.

현장 평가는 더 편안해진 광주(안전·교통 분야), 더 풍성한 광주(문화·관광·체육 분야), 더 따뜻한 광주(복지·돌봄 분야), 더 활기찬 광주(산업·경제 분야), 더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광주(환경·청년·교육 분야)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각 부스에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시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예정이다. 박람회를 찾는 시민들은 가장 기대되는 정책 2개를 선택해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의견관’에 포스트잇을 붙여 자유롭게 제안이나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투표 결과

는 행사장 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돼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정책평가박람회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지역사회리더를 대상으로 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올해의 베스트(Best) 정책 10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올해 정책평가박람회의 주체처럼 정책은 시민의 손을 거쳐 완성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행복한 광주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마음 힐링’ 생명 존중 캠페인. 자살 급증지역 공동 대응을 위한 생명존중 캠페인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열려 어르신들이 우울 검진과 심층 상담, 마음힐링 프로그램 등 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 이정선 교육감 후보 “당선 시 월급 50% 기부”

이정선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는 20일 “당선되면 재임 기간 받게 될 급여의 50%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이정선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와 경제적 불황으로, 학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전남광주의 학부모들과 아픔을 분담하고,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장학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급여 환원 및 장학금 조성 이행약정 공증서’를 공개했다. 공증서는 이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매월 세후 실수령액의 50%를 공제해 지정 장학재단으로 자동이체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 후보는 “월급의 절반을 내놓는 것은 비유



이 아니라,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를 채우는 가장 행복한 투자”라며 “매년 연말 기부금의 집행내역과 장학금 수혜 현황을 담은 ‘장학금 운용 투명성 보고서’를 시민들 앞에 1원 한 장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연봉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1억5천여 만원이다. /박선욱 기자

## 영암 KIC서 ‘亞모터스포츠 카니발’ 질주

24일 8개 종목 107대 출전 경쟁  
공연·전시 등 복합형 스피드축제

전남도가 후원하고 (주)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2026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24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Korea International Circuit-KIC)에서 레이스와 공연, 체험행사가 결합한 모터스포츠 축제로 열린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2014년부터 아시아 지역 간 모터스포츠 문화 교류를 위해 경주대회를 기반으로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복합형 스피드축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상위 클래스인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GT4(고성능 양산차) ▲서킷스토리 아카데미 GTA·GTB ▲금호 M(BMW) ▲알핀(프랑스 스포츠차) ▲프리우스 PHEV(일본 하이브리드) ▲라디칼 컵 코리아(영국 레이싱 전용차) 등 8개 종목에 107대가 참가한다. 가장 인기가 높은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은 주행 거리를 기존 95km에서 157km로 늘리고 의무 피트스톱(Pit Stop)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타이어 교체 여부, 피트 체류 시간 등 전략 요소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어 관람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음악공연을 확대해 파크뮤직페

스티벌과 연계해 열린다. 널, 김창완밴드, 멜로망스, 데이브레이크, QWER 등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출연진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관람객은 ▲선수와 차량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리드워크’ ▲프로 드라이버와 서킷을 질주하는 ‘택시타임’ ▲서킷 버스투어 등이 준비돼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대회 기간 선수·관계자 5천여명이 체류하고, 결승전 당일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숙박·외식업과 주변 관광지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기자

##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 참가하세요”

전남도, 7월9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20일 “전남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제4회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 오는 7월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는 쌀을 재료로 한 창의적 레시피를 발굴하고 일상 속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1·2회 대회에서는 광주·순천 지역 참가자가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제3회 대회에서는 완도·파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면서 전국 규모 경연대회로 거듭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참가 대상은 쌀 요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작품은 쌀(가루쌀 포함)을 30% 이상 활용한 요리다. 신청서와 레시피를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전자우편(wmgreen@hanmail.net)이나 우편(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407호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선 경연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는 7월10일 실시해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발한다. 본선은 7월21일 순천제일대학교 성심관 조리실에서 열린다. /양시원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인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